

한라시론



유 동 현  
진로·취업컨설팅 편집장 대표

이론 중심으로 하는 직업훈련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 실제 건축현장에서 빌드(건축기술자) 교육을 하고 있다. 교육을 탄탄위로 진행하고, 팀원들이 팀장을 뽑아서 리더를 정하고, 팀원들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교육 중 지은 집이 연습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건축물이기 때문에 하자 없이 꼼꼼하게 시공해야 하므로 매우 신중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기에 하지만 실제 건축공사다. 이렇게 해야 실제 현장(필드)에 가서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보기에

인정에 목마른 팀원

이런 방법을 택하여 실시하고 있다. 훈련 교수는 팀장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고 다시 팀장이 팀원에게 작업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런 방법을 실시하다 보니 처음부터 팀장 자리를 두고 갈등이 생긴다. 스스로 팀장을 하고 싶은 사람과 팀장 적임자가 다른 경우는 더욱 그렇다. 스스로 강력하게 팀장이 되고 싶다고 피력했는데 뜻을 못 이루고 팀원이 돼서 강한 자기주장을 하게 되면 그 팀은 교육을 진행하는 내내 분란이 있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리더가 되고자 하다 보면 스스로에 대해 객관적인 자기평가를 못하는 사람이다. 자기만 자기가 리더로 적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생을 보면서 '왜 저렇게 갈등을 조정하면서까지 리더가 되려고 할까?' 생각해 보았다. 모든 경우에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내가 경험한 이 교육생은 인정

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무슨 일이라도 하면 그것이 표가 나서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는 것에 매우 흐트해했다.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꼭 인정을 받고 싶어했다. 리더가 되려면 팀원들의 마음을 챙길 수 있는 공감능력과 작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구상할 수 있는 플랜능력이 있어야하나 두 가지 능력이 부족했다. 반면에 몸을 이용해 손발을 이용하여 시공하는 능력은 매우 뛰어났다. 리더는 머리 역할을 해야하나 손과 발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격이었다. 능력이 안 되지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서려고 하는 경우는 과거 성장과정에서의 경험과 필히 연관이 있다. 점심메뉴를 너무 짜게 먹었다면 점심식사 이후에도 계속 물이 당기게 된다. 우리 몸은 짠 음식이 들어오면 물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물을 달라고 요구한다.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계속 달라고 한다. 이런 현상이 심리에서도 동일하다. 어렸을 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한 경험이 있다면 그 당시에 풀지 못한 갈증을 후에 어른이 되어서라도 풀려고 은연 중에 움직인다. 본인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른다. 안타깝게도 이 교육생의 경우는 자기 성찰에 대해서 방어를 했기 때문에 좀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지켜보기로 했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팀워크를 살리기 위해서 갈등이 될 생기는 성격유형들과 한 팀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팀 갈등을 수습했다. 지금 사례에서는 팀 갈등 원인으로 '나서는 사람' 유형에 대해서 다뤘지만 개인의 다른 심리특성이 팀워크에 크나큰 악영향을 준다면 심리상담을 꼭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인 문제가 팀 문제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사설

재해로 망친 농작물, 특단 대책 마련하라

제주농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지역 농민들이 '근조 2019 제주농업 파산' 피켓과 함께 상복을 입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자연재해로 올해 농사를 망친 농민들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제주도청 앞에 모였습니다. 제주를 방문한 국회의원들에게 제주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한 것입니다. 전농제주도연맹과 한농연제주도연합, 제주당근생산자협의회 등 도내 5개 농민단체는 15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제주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앞장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2년간 농산물 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농민들은 이번 자연재해로 생존권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제주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을 알린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현

행 규정상 어렵다면 그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대책을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죽하면 제주농민들이 일손을 접고 실력행사에 나섰겠습니까. 유례없는 자연재해로 모든 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때문입니다. 제주지역은 가을장마와 세차레의 태풍으로 농작물 1만3000여ha·193억원 이상의 피해복구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농작물은 피해면적만 산정된다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농작물은 피해가 아무리 많아도 피해 집계에서 제외돼 폐작 등 실제 피해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애김입니다. 게다가 연쇄적인 재해로 피해를 봤더라도 합산이 안된다는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농민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전향적 검토해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제주농업의 최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섬이라는 특성상 과도한 물류비는 여간 부담이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째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재부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청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15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해상운송비 국비지원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해상운송비는 도서지역 농산물의 농산물 육지 출하에 따른 운송비 부담 경감이 목적"이라며 "조건불리 직불제와는 목적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정부의 '조건불리 직불금 중복 지원'이라는 논리에 반박한 것입니다. 김현권 의원(민주당)은 "제주도 농산물 생산량이 많아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며 "도

민들이 해상물류비 때문에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적했듯이 제주는 겨울철 신선채소의 공급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민건강과 수급안정에 기여하는 측면이 큼니다. 그렇다면 해상운송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주농산물의 연간 총 물류비는 2000억 원을 웃돕니다. 이중 해상물류비는 740억 원에 이릅니다. 전국 해상물류비의 92%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입니다. 제주 농업인들은 재계에 농산물을 팔아도 물류비를 제하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농자재 반입 과정에서 물류비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수준에 이른 농가부채도 과도한 물류비 부담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물류비 부담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할 정도로입니다. 기재부로서 더 이상 반대는 겨울 생산물이 많아서 내륙 소비에 끼치는 역할이 많다"며 "도

편집국 25시

세대 간 소통의 장벽 '신조어'



김 경 섭  
편집부 기자  
kks@ihalla.com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된 요즘, 각종 신조어가 유행처럼 번지면서 초등학생들의 신조어 사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신조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말이나 외래어를 말한다. 이들이 신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의사소통을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조어가 가족 및 세대 간 소통의 장벽이 되고 있다. 어린이 직접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 따르면 2015년 9월 25일부터 29일까지 초등학생 학부모 111명에게 '자녀의 신조어, 줄임말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은 결

과 '소통의 단절(끊김)과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 답한 학부모가 63%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9-13세까지 어린이 3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하루에 사용하는 신조어, 줄임말의 수는 평균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 쓰는 신조어, 줄임말에는 '핵노잼'('엄청나게 재미없다'는 뜻)이 23%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생선'('생일 선물'의 줄임말 22%), '노답'('영어 NO(아니다)'와 '답'을 합친 말로 '답이 없다'는 뜻 18%) 순이었다. 최근에도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언어를 많이 쓰고 있다. 자녀의 신조어 사용으로 인해 부모는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워하고 자녀와 대화를 할 때 힘들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학교와 가정 내에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특히 사회적이고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신조어 사용을 삼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 또한, 우리부터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츰 신조어를 줄이고 순우리말과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뉴스-in

"공직사회 이해도 떨어져 적응 힘들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눈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6일 개방형 공모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김성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며 슬렁. 김성은 담당관은 이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못했고, 기획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토로. 눈물까지 보인 김 담당관은 "공무원 업무 스타일과 부닥쳤고,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공직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공직생활을 마감. 조상윤기자

농협, 피해복구·ASF로 분주

○...제주농협과 지역 농협조합이 최근 잇단 태풍 피해에 따른 하우스 시설 복구작업 및 피해농가 일손돕기에 나서며 연일 분주. 또한 농협은 방역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양돈농가 밀집지역을 중심

으로 매일 방역활동에 나서고 금악과 대정지역 등에 설치한 방역통제초소 4곳에 직원을 투입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에 만전. 농협 관계자는 "주말과 휴일에도 간부들을 중심으로 ASF 방역통제초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태풍 피해 복구와 ASF로 눈코 뜰 새가 없다"고 강조. 백규탁기자

"평화인권교육 펼치겠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부마민주항쟁 40주년을 맞아 "평화인권교육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피력. 이 교육감은 16일 기념사를 내고 "제주4·3에서부터 이어진 민주공화국을 향한 여정이 부마민주항쟁에 이르러 새로운 시대의 정신으로 승화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강조. 이어 "그 역사적 의미가 아이들의 삶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평화인권교육을 충실히 하겠다"며 "교육의 힘으로 사람의 존엄함이 존중받는 평화로운 하나된 나라를 이루겠다"고 점언. 김지은기자

**부 고**  
고택진(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 아버지 국가유공자 제주고교 명홍(향년 89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5일 05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0월 17일(목)  
▶ 발인일사: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 발인장소: 신제주성당  
▶ 장 자: 양지공원 (추후 국립묘지 안장)

**부 고**  
이승택(前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장) 아버지 고부이공 세환(이세환건축사사무소 소장·향년 82세)께서 서기 2019년 10월 16일 01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0월 17일(목)  
▶ 발인일사: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서귀포성당  
▶ 장 자: 양지공원→서귀포추모공원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영현(향년 92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19년 10월 17일  
아들 강승욱 며느리 현미열  
병관 이서윤  
건욱 김윤숙  
딸 강승순 사위 양상홍  
승자 강영복  
경희 김철준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 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전기자동차매매상사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을 미국식품의약국 FDA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성담 010-2691-9316  
홈페이지: http://www.baekdoraji.com  
주소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포로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서귀포시정 소식**  
한누리 힐링 국악콘서트 '찾아가는 회회락콘서트' 공연 알림  
○ 공연일시: 2019. 10. 29(화) 19:30  
○ 공연장소: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 출연진: 한누리가무악교리(소리 박애리, 태평소 이정훈)  
○ 공연내용: 대중들이 어렵게 느끼는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국악 관현악 형태로 창작하여 해설과 함께 쉽게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공연으로 제작 - 방방곡곡 문화공감 민간우수단체 선정 사업 공연  
○ 관람티켓: 90분  
○ 입장료: 1층 1만5천원, 2층 1만원  
○ 예매처: 10. 10(목)부터 서귀포예술의전당 홈페이지 및 현장예매  
○ 공연문의: 서귀포예술의전당 ☎ 760-3365  
서귀포보건소 대상포진 무료접종 안내  
○ 접종대상: 만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 제주도민 / 1954. 12. 31이전출생자  
○ 접종장소: 도내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접종기간: 2019. 10. 14(화)부터 연중  
○ 접종시간: 평일 09:00~17:00/점심시간(11:30~13:00) 및 공휴일 제외)  
○ 접 중 비: 무료/접종횟수 1회  
○ 준비물: 신분증,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반드시 지참  
○ 문의사항: 서귀포보건소 ☎ 760-6085~6087  
11월중 서귀포시청 건강증진(헬스) 프로그램 알림  
○ 신청기간: 2019. 10. 21(월) ~ 10. 25(금)  
○ 신청대상 및 인원: 서귀포시민 / 오전·오후 각 25명 / 선착순  
○ 운영일시: 2019. 11. 1 ~ 11. 30 / 매주 월~금  
- 오전 09:30~11:30 / 오후 14:30~16:30  
○ 운영장소: 서귀포시청 1청사 별관 6층 스포츠센터  
○ 운영내용: 헬스 프로그램  
○ 신청방법: 서귀포시 총무과(본관 3층) 방문 및 팩스(760-2049) 접수  
\* 팩스 접수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확인  
○ 수강료: 무료  
○ 문의사항: 서귀포시 총무과 ☎ 760-2047